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실천하는 경기 이천 새서울농장



▲ 월포리에 위치한 새서울농장은 농장장이 농장의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모돈사 1명, 분만사 2명, 자돈사와 육성·비육사 1명, 출하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은 각기 담당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해오고 있다. 아울러 박필규 대표는 확인 작업을 하고, 분뇨처리, 출하관리, 위탁관리 등 외부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류장희 농장장(맨 우측)과 박필규 대표(우측에서 두번째)

- 취재 : 정재은 -

보통 냄새나고, 파리 끓고, 외진 곳에 위치한 근무환경과 급여 및 후생복지 등의 조건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양돈장에서 근무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어 따라 국내 양돈장은 인력이 무척 귀하게 되었다. 경쟁력이 가능한 전업규모 농장에서는 보다 생산성을 높이고자 규모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고용인력과 숙달된 양돈전문인의 부족 심화로 경영관리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의 인력고용과 고용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고용인력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주의 경영마인드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새서울농장(대표 박필규, 56세)은 양돈장 경영의 핵심을 '인력관리'로 생각하고, 직원들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작업여건을 마련하고 적절한 대우 및 근로조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돼지를 키우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새서울농장 규모 및 인력 현황

새서울농장의 콕필규 대표는 경기 이천 출신으로 83년 장원 진암리에서 모돈 12두로 양돈을 시작하였다. 97년 2월 이천시 울면 월포리에 돈사를 새로 지었고, 98년 4월 입식을 시작하여 모돈 550두(총 6,000두 규모)를 구성하였다. 현재는 모돈 630두(후보돈 제외), 총사육두수 7,000두 규모의 새서울농장을 운영(일관경영)해 오고 있다. 아울러 진암리에 위치한 농장은 자돈과 비육돈 1,000두 농장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천시 울면 월포리에 위치한 새서울농장은 모돈사 1개동(420평), 분만사·자돈사 1개동(420평), 육성·비육사 1개동(300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만사·자돈사가 1개동으로 되어 있지만, 구분이 되어 있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돈사는 분과 뇨가 구분되는 스크레파 돈사이며, 개방식 돈사이다. 분뇨는 퇴비화 처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액비 저장탱크가 있어 일부 액비화 처리가 이루어지고, 하루 10톤 방류가 가능하도록 활성오니 처리를 위한 시설을

공사중에 있으며 곧 가동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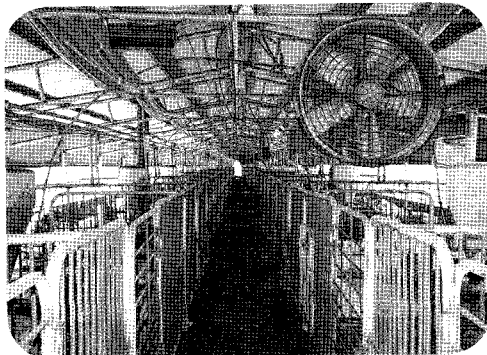
콕필규 대표를 제외하고 월포리 농장에 류장희 농장장(42세)과 5명의 직원, 진암리 농장에 2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월포리에 위치한 새서울농장은 농장장이 농장의 모든 업무를 전반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모돈사 1명, 분만사 2명, 자돈사와 육성·비육사 1명, 출하담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은 각기 담당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해오고 있다.

돈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원은 40대 농장장을 비롯해 모돈사와 육성·비육사에 50대 2명, 분만사에 40대 1명과 20대 후반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40, 50대 직원들은 경력이 15~20년 이상으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류장희 농장장은 2001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해 오고 있으며, 나머지 직원들도 3년 이상 지금까지 계속 근무해 오고 있다. 특히 직원 교체는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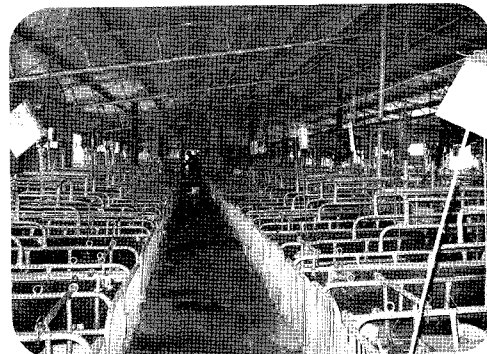
철저한 주간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인 업무 분장

콕필규 대표는 "규모에 비해 많은 인력이 고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철저한 주간관리 시스템과 체계적인 업무 분장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농장 작업은 주간관리를 넘어서 각 요일별 관리까지 정확히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다. 새서울농장의 경우 이유 전출입은 목요일, 중부는 월, 화, 수요일(화요일에 집중), 분만은 목, 금, 토(금요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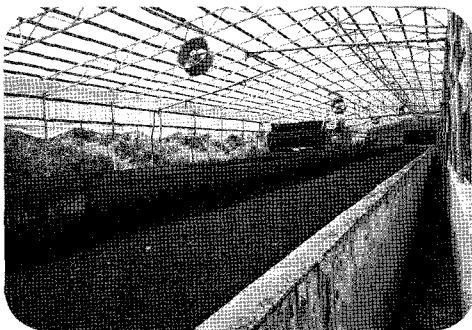
▲ 새서울농장 모돈사 내부 모습



▲ 새서울농장 분만사 내부 모습



▲ 새서울농장 자돈사 내부 모습



▲ 새서울농장 돈분발효장 모습

집중)에 주로 일어난다. 아울러 모든 백신은 금요일, 분만사 백신은 화요일, 거세 작업은 화, 수요일 위주로 해오고 있다. 또한 3일령에 철분주사 작업이 실시된다.

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가 이미 정해져 있어 모든 작업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집중되는 작업들은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등 지원을 통해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 있다. 모든 직원들은 맡은 바 책임감과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필요시 공동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콕필규 대표는 확인

작업을 하고, 분뇨처리, 출하관리, 위탁관리 등 외부활동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세밀한 기록과 정기적인 의사소통으로 의견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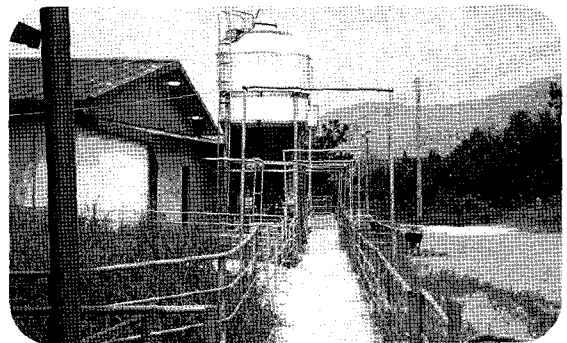
날짜별, 요일별로 주요한 작업들이 명시되어 있어 일정에 따라 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개체기록부, 분만대장 등 각종 기록을 빠짐없이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돈사별로 하루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직원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그밖에 사육현황과 교배, 이유, 사고율 등 생산현황을 전산처리 해나가고 있다. 출하 및 도태 판매현황, 사료 입고 현황, 업무 내용, 진암리 농장 사육현황과, 4군데 위탁농가 사육현황까지 철저히 기록하

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 점심식사 후에는 정기적으로 직원 회의를 실시함으로써 1주간 작업실태, 어려웠던 일 등을 이야기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건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주로 농장장 중심으로 회의가 주재되며, 직원들이 농장장에 의견을 전달하면 농장장이 콕필규 대표에게 전달하고, 콕필규 대표는 의견을 수용하고 요구를 들어주도록 애쓰고 있다.

한편 하루 업무가 시작되기 10분전쯤에 콕필규 대표와 직원들은 사무실에 모여 티타임을 가지면서,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 사회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나감으로써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각 돈사마다 연결되어 있는 돼지 이동통로(시멘트 통로), 이동통로가 전부 연결되어 있어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이동 작업을 할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으로 높은 생산성적 유지

새서울농장은 2002년 1월 후보돈 순종 15두를 미국에서 수입해 왔으며, 직접 F1을 생산하고 있다. 2003년도 모돈 갱신율은 70% 수준이었다. 아울러 질병 차단에 도움이 되고 있다.

2003년 새서울농장 분만율은 87%(보정분만율 90% 이상), 모돈회전율 2.4회 이상, PSY 23두, MSY 22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실산자수는 10.8~11두, 평균이유두수는 10두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자돈사 사고율이 거의 없으며, 이유육성률이 97%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총 출하두수는 1만2천두 정도였으며, 출하일령 165~170일에 출하체중 110kg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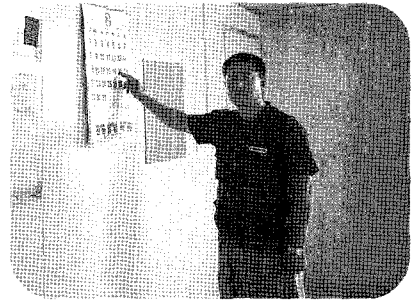
한편 농장입구에서 방문객 출입을 금하고 차량은 수동으로 바뀌까지 소독하고 있다. 또한 매일 1번씩 소독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분만사와 여름의 경우 2번 정도씩 소독을 해나가고 있는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리고 돼지 관리는 상황에 따라 영양제를 첨가하거나 여

름에는 강심이노작용을 위한 사료첨가제 투입 등으로 영양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자돈사에서는 이유 후 5일간 액상급이를 함으로써 수분, 전해질 공급, 스트레스 완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기본에 충실한 백신프로그램 적용 및 사양관리 뿐만 아니라 직원별 업무 분장과 필요시 공동작업 등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으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서로 신뢰 형성 및 상대방 입장 이해와 배려를 위한 노력

곽필규 대표는 양돈경영의 핵심을 인력관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직원들은 자기 농장처럼 책임감을 갖고



▲ 날짜별, 요일별로 주요한 작업들이 명시되어 있어 일정에 따라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 새서울농장 사무실과 내부 기숙사 전경



▲ 사무실에는 양돈 관련 전문지와 서적이 비치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컴퓨터와 TV가 갖춰져 있어 편하고 즐겁게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다.

일을 해나가고 있으며, 곽 대표는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응하는 배려를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곽필규 대표는 “직원들과 대화를 자주 함으로써 직원들이 처한 상황과 건강상태, 관심거리 등을 확인하고, 직원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며 복리후생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급은 직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형평성 및 개인 경력과 수준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으며, 월 2회 이상의 휴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내부 기숙사가 있어 숙식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 직원들은 사택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사택 구입과 관련 시설 설치시 보조 및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야간에 돼지 상태 점검을 위해 순번제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숙직비를 지급하고 있다. 직원들은 오전 8시에 출근해 12시에 중식을 하고, 1시 30분부터 오후 업무를 시작에 6시에 종료한다. 무더운 여름 6, 7, 8월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과 휴식시간을 늘리고 7시에 업무를 종료하는 등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무실에

는 양돈 관련 전문지와 서적이 비치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컴퓨터와 TV가 갖춰져 있어 편하고 즐겁게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다. 한편 필요한 경우에 강사를 초빙해 인성교육과 더불어 뛰어난 기술 습득을 위한 사양교육 등을 종종 실시하고 있다.

성과급제 도입과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터

곽필규 대표는 “우리 농장은 다른 농장에 비해 1인당 돼지 관리두수가 높은 편이다.”며, “시설이 합리적, 현대적으로 설계되어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경력 있는 직원들이 분담해서 일을 체계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처럼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농장경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적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 같다.”며, “내년부터 성과급제 적용 계획을 갖고 있으며, 환경 및 후생복지 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

라고 강조한다.

한편 곽필규 대표는 “위탁농장에서 성적이 좋지 못한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올해 1,500평 정도의 여유 토지에 자돈사와 비육사 4개동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모든 900두(총사육두수 10,000두) 규모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며, “자금 지원을 받아 돈사를 지으면 위탁사육비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더욱 내실 있는 경영으로 내년부터는 안정적이고 발전하는 농장으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교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들이 차후에 차세대 경영인으로서 새서울농장을 더욱 전문적으로 경영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곽 대표는 “직원들을 한 가족처럼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을 신중하게 하여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또한 직원들과 대화를 자주 함으로써 직원들이 처한 상황과 건강상태, 관심거리 등을 확인하고, 직원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우며 복리후생을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돈**